

전남·경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손 맞잡은 영호남 "아이들 도울 천사 찾아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 저소득 아동 정기후원자
- '1004'명씩 발굴
- 각각 1억원 모금
- 주거환경 개선
- 드림 오케스트라 등에
- 영호남 교차지원키로



아이들의 든든한 우산이 되어주세요 전남도와 경북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관계자들이 지난 7월23일 경북도청에서 빈곤아동들의 자립기반을 만들기 위한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양지역 아동들과 함께 '초록우산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영연(9·가방)이는 50년이 넘는 낡은 흙집에서 산다. 재래식 부엌과 화장실, 연탄보일러에 방 두칸이 전부인 이 집에서 다섯 식구가 생활하고 있다. 그나마 방 한칸은 연탄아궁이가 망가져 불을 지피지 못해 겨울이면 전기장판에 의존해야 한다. 그나마 집 주인의 배려로 무료로 살고 있는데, 흙집을 수리하거나 이사는 엄두조차 낼 수 없다. 올 겨울을 나기 위해 다른 집들을 알아보고 있으나, 어머니와 언니의 경증지적장애를 의식해 쉽게 집을 빌려주는 이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ADHD(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동현(14·가방)이는 5년간 초록우산 드림오케스트라에서 '타인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웠다. 분노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돌을 던지기도 했던 동현이는 이곳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법과 지휘자의 손끝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더불어 다양한 무대경험을 통해 관객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주기 위한 전남과 경북의 대규모 상생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지난 7월 경북도청에서 이낙연 전남도 지사와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재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이 참석해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남도는 22개 시·군 51명의 추진위원단을 꾸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는 전남과 경북 등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화합을 위해 전남도와 경북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공동협력 프로젝트로, 국내 저소득 아동들의 안정적인 경제지원을 위해 3개 기관이 뜻을 모은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로 전남과 경북은 각각 1004명의 정기후원자를 발굴, 또 연간 1억원의 일시 후원금을 모금한다. 이렇게 모

인 후원금은 전남과 경북의 교차지원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쓰일 예정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경북이 전체(102만 7000가구)의 11.7%인 12만 가구로 전국 12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전남이 전체(65만 가구)의 11.2%인 7만 3000가구로 전국 두번째로 주거환경이 열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

- 2015년 6월초 MOU 체결
- 2015년 6월~2016년1월 천사 캠페인
 - 천사 모금캠페인(11~12월)
- 2016년 1월~12월 후원금 지원
 - 정기지원(1~12월) -월 5~10만원
 - 일시지원(12월) -1인 10만원 상당
- 2016년 5월~12월 영호남 교류협력사업
 - 지역탐방캠프(5월)
 - 천사보금자리 주택지원(5~12월)
 - 문화예술 교류(8월)
 - 소원찾아 희망심어주기(12월)

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영연이의 사례와 같이 전남은 10가구 가운데 1가구 꼴로 최저 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 주거기준이란 국민의 주거생활 편의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주택법에 따라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과 방의 개수, 부엌과 화장실 등 정해놓은 기준을 말한다.

또 조순가정 5003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정 7746명으로 추산되고 있는 전남에서는 계층간, 지역간, 세대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가 진행되고 있다. 초록우산 드림 오케스트라는 빈곤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제공, 아동의 정서·심리적 발달을 도와 빈곤문화를 개선해나가고 있는 행사다.

이에 따라 각 도가 연간 1억원씩 모은 일시 후원금은 주거환경 개선과 드림오케스트라 등 전남·경북의 문화예술 교류를 통한 빈곤 개선사업 등에 사용된다. 동서화합 천사프로젝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전남지역본부(061-274-0041) 또는 전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실(061-286-59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후원 계좌번호는 농협 301-0081-6148-11(예금주 어린이재단)이다. /박기용기자 pboxer@

장애인 대상 범죄 경력자, 관련시설 취업 제한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취업 못하게 법 개정

앞으로 성범죄 경력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서 일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살인, 상해, 유기 등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는 10년간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기존에는 성범죄 경력자에 한해서만 운영 및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의 인권침해를 폭넓게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고자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아울러 학대 피해 장애인을 일시 보호

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서울 성북구, 경기 포천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4곳)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사망하거나 장애판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면 장애인 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수당 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장애 정도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담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촉위원의 해촉 기준 등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

'당뇨병성 망막병증' 5년새 37% 급증

70대 82.1% 최대 증가폭...정기적 안구 검사 필수

당뇨병으로 인한 망막 손상 합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 환자는 최근 5년 사이 8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분석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성 망막병증' 환자는 지난 2010년 24만명에서 지난해 32만8000명으로 37% 증가했다. 연평균 8.2%씩 늘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329억여원에서 436억여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2.7%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당뇨병을 앓으며 오랜 기간 고혈당에 노출된 망막이 손상을 입는 안과 합병증이다. 망막의 미세혈관에 순환장애가 생겨 시력이 점점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해 이를 수도 있다. 연령별로는 지난해 기준 70대 이상 진료인원이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31.7%), 50대(24.1%) 등의 순이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환자수가 각각 10% 미만이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 환자는 지난 5년 사이 환자수가 82.1% 늘어 증가 폭이 다른 연령대보다 컸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피하려면 원인 질환인 당뇨병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면 정기적으로 안과를 찾아 동공을 통해 눈의 내부를 관찰하는 안저 검사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경민기자 kki@

광주 북구 '우수 보육사례 발표회'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우수 보육 아이들을 공유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북구는 오는 5일 오후 1시30분부터 북구 문화동 사회문화마을 문화관에서 관내 어린이집 교직원 및 학부모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진 보육문화 확산을 위한 '2015 우수 보육프로그램 사례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 어린이집 6곳의 보육교사가 '충충곰나뭇들의 이웃사랑이야기' '영유아 권리존중 보육' '비폭력 대화' '해피비교교학' '아빠참여수업' '엄마·

아빠랑 걸어요' 등 우수사례를 발표한 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발표회는 우수 보육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어린이집 간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우수 보육교직원 11명에 대한 표창도 수여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4층 상가매매
(첨단지구,쌍암동)
(대지-180평, 건물-470평)
1층 (식당)
2층 (노래연습장)
3층~4층 (pc방,사무실)
월 수익 (980만)
(보 1억1천, 용 3억)
매가 13억

2층 상가 매매
(나주시 삼영동)
☆ 나주 혁신도시 10분 !!
(토 205평, 건135평)
영강고교/영강초교 정문 앞
1층 6칸(올임대)
2층 2칸(사무실)
(보2천, 용1억2천 - 월수익 200만)
매가 3억

상가원룸 매매
(전대 정문,후문 2분!)
(대지-180평, 건물-470평)
1층 (상가,1칸)
2층~3층 (룸10개)
4층 (주택)
월 수익 (450만)
(보 4,000만, 용 1억)
매가 7억

법률 경매

- 북구 오룡동 (근린상가주택) (토 500평, 건 904평) 감정가 35억4천 → **28억3천** (첨단지구 삼성전자 앞) (1층상가, 120평-2~7층 룠 54개-8층, 주택겸사무실)
- 서구 농성동 (토 86평, 건 263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 지하 (국악연습실) 1층(상가) 2층~3층 (룸 10개) 4층 (주택) ☆ 농성역 부근, 서구 K지사 부근
- 북구 두암동 (토 44평, 건 166평) 감정가 3억5천 → **최저가 3억5천** → 지하 (점포) 1층 (점포) 2층~4층(주택) ☆두암초교 부근, 도로접 코너자리
- 서구 치평동 (토 3평, 건 90평) 감정가 5억7천 → **최저가 3억2천** 10층 중 7층 (상무지구 변화가 위치) 유흥지점 운영자 추천
- 북구 유동 (토 240평, 건 818평) 감정가 24억3천만 → **최저가 17억** 1층(점포) 2층~5층(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매교육
경매 이제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천 교육듣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일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원구함 (남,여직원) 경매, 부동산 배우실분 경매컨설팅 교육

수익성 상가 (근린시설,통건물)

- 수원지구 (우미린A.P.T) 4층건물 (대지 144평, 건 260평) → 매가 17억
- 상무지구 5층건물 (우리은행) 금융가터 (월수익 1,000만 - 보2억,용6억) → 매가 27억
- 상무지구 상가 5층건물 (롯데마트앞) (대지 122평, 건423평) → 매가 28억
- 광안구 월계동 1층상가 매매 (40평) (보 8백,월 80만) (용 4천) → 매가 1억5천만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 6층 (45평) (보 1천,월90만) (용 5천) → 매가 1억1천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상가)

- 상무지구 정연 오피 3층 (30평) 한국은행 앞 (보1천, 월60만) 임대완료 → 매가 1억3천만
- 상무지구 수림 오피 6층 (23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 옆 (보5백, 월45만 - 임대완료) → 매가 8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9평) 롯데마트 앞, 상무나이트옆 (용4천) (보5백, 월42만) → 매가 7천5백만
- 상무지구 수림오피 6층(13평)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옆 (용2천) (보3백, 월33만) → 매가 4천5백
- 서구 쌍촌동 대운파크 2층(11평) 윤천역 1번출구 3분 (용2천) (보3백, 월32만) → 매가 3천6백만

수익성 상가 매매 (근린시설, 통건물)

- 북구 중흥동 원룸 상가 (전대 정문2부,코너) (월수익 500만) (1층상가, 2개) (4층 주택) (2~3층-원룸 10개) → 매가 6억8천
- 전대 정문 상가 원룸 매매(1층상가2개-투룸12개,원룸6개) (보4천5백,월720만) → 매가 7억8천만
- 용봉지구 원룸 (미래도 A.P.T 코너) 룸-20개 (엘리베이터 있음) 월수익 800만 → 매가 11억
- 광양 광명동 상가A.P.T 12층(15평) 상가빌딩지역,아파트단지 (보2천, 월25만) → 매가 3억8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062-382-5500, 010-6832-9700